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Ⅳ(최종회)

The Bible has the secret that the human body does not die

Hello, Continuing from last week, today, the Bible has the human body's secret not to die. 인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다!"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The saying to man, "to have the heart of God", means that man is God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he Bible says that man is God, and humanity is god, and man is god. Where can we find this word? There is a word that tells people to have the heart of God. "To have the mind of God", anything cannot have the heart of God unless it is God. 성경 말씀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요, 인간이 곧 신이다!" 사람이 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사람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의 마음을 품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Therefore, the saying to man, "to have the heart of God", means that man is God. Also, to man,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is to be born again as the Spirit of God. To be reborn as God means that man used to be God, but now He is imprisoned in the devil's prison. Therefore, the saying means "man is a god." 그리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 되는 고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었었다! 그러나 현

재는 마귀옥에 갇힌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뜻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사람이 신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Materialists in this world insist that there is no God in this world. These are words spoken while they were not aware that people do not know God's identity and that people themselves are gods. 이 세상에 유물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학설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정의를 모르는 자요 바로 사람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from the human body 사람의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

Therefore, 'man himself is God!' It can be scientifically proven that what is being said is correct.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from the human body. The fact that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out of the human body is precisely what the Bible says that the Spirit of God is light. 그리고로 '사람 자체가 신이다!'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은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Dr Sermoa, a psychic scientist in the old Soviet Union, took a picture of Kirlian using high-frequency waves. When he took a picture, the light emitted from Kirlian's body came out in the picture, and they announced worldwide that an aura comes out of the human body. They only found that the light was coming out, but why the light comes out and what material the light is made of is unknown



1987년 10월 18일 뉴욕 한국교포방송사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총 4회 중 최종회차 방영된 조희성 총재님의 설교 장면

to scientists worldwide today. 그런데 저 소련에서 작년 세르모아라고 하는 심령 과학자가 키르리안이라는 사람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찍어보니 키르리안 몸에서 빛이 방사되는 그러한 빛이 그 사진에 찍혀 나와서 세계적으로 '사람 몸에서 오로라가 나온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나오는 것만 알았지, 빛이 왜 나오는지 그 빛이 무슨 물질인지 이것까지는 오늘날 이 세계 과학자들이 포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man is claiming that the light is the Spirit of God.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at God is light. Therefore, the light that comes out of the human body proves that the Spirit of God exists in the human body, and it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lives in the human body. 이 사람은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바로 '빛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s I said last week, the Spirit of God is not at the top of the sky. Ephesians 6:12 says that the god in the air is an evil spirit, and Ephesians 2:2 says that the god who has authority over the air is a devil. 그리고로 하나님의 신은 지만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꼭대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것이 마귀라고 쓰여 있고 공중의 신이 악신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쓰여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신은 마귀신'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God's blood is flowing in us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Therefore, according to the Bible, the devil is at the top of the sky, and God is in man. If we look at our state and our circumstances, we are not made of other blood. We are made from the blood of our ancestors. We were made from mother's and father's blood, made from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blood, made from great-grandmother's and great-grandfather's blood, keep tracking

to the top of the bloodline, then finally made from Adam's and Eve's blood. 그리고로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늘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고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다른 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조상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refore, who can deny the fact that God's blood is flowing in us? The blood of God is the Spirit of God, and the blood of God is the life of God. Therefore, blood is life, and life is blood. It is written in Leviticus 17:11 and Genesis 9:4 that blood is life. 그리고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로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 피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창세기서 9장 4절에도 피가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as it is written in John 1:1, life is the life of God, and life is the Spirit, the spirit itself is life, life itself is blood, and blood itself is life. Therefore, human blood contains the Spirit of God. 그리고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생명이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 되는 고로 그리고로 사람의 피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God's blood is in man, it is said that the Spirit of God resides in each

person. Even if we look at the principle of blood, we can know that it contains God's blood, and we can also see it by looking at the phenomena of our hearts. Each person has a conscience. The conscience is a good spirit, a good spirit is a good god, and a good god is the god of God. 그리고로 하나님의 피가 사람 속에 있는 고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 원리적으로 논해도 하나님의 피가 들어 있다가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한 영입니다. 선한 영은 선한 신, 선한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The god of God is the conscience, and the conscience itself is the action of the blood of God. Therefore, If we look at the Bible verses that say, 'No one can tell that the kingdom of God is, here it is, or there it is, but it is in your hearts,' and the verses that say,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we can see that the spirit of God is within people and that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So the kingdom of heaven is realized in living people, but to say that the soul ascended to heaven after death is unbiblical logic. 하나님의 신이 바로 양심이요 양심 자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계시다고 성경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인 고로 하늘나라는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장 여호수아》

1절: 가나안 침입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각 대표자들에게, "가서 식량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르시오. 우리들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겠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세를 따르고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1) 여리고를 간 두 정탐꾼

'여리고'라는 성을 정찰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답에서 여리고로 간 두 정탐꾼은 '다합'이라는 여자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의 왕이 누군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 밤에 이리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두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온 자들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두 사람을 숨기고 왕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밖에 나간 것 같은데, 재빨리 뒤쫓아 가면 잡을 수 있

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라합은 지붕에 넣어 놓은 삼대 속에 두 사람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라합의 말대로 요단강의 나루터까지 두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한편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 둔 두 정탐꾼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그 만 간담이 서늘했고 절망했지 뭐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이예요. 부디 제가 당신들에게 친절히 대했듯이 당신들도 저와 저의 가족 모두의 목숨을 살려 주시고 우리 재산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아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세요."

(2) 두 정탐꾼의 맹세

라합의 말을 듣자 두 사람은 "만약 당신이 우리 일을 왕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그리고 우리들이 여호와와 인도로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껏 보살펴 주겠소"하고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에다 줄을 늘어뜨려 두 사람을 성벽 아래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속에서 사흘만 숨어 계시요. 그동안에 당신들을 찾으러 간 왕의 신하들이 돌아올 거예요"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정탐꾼도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소. 우리들 이스라엘 군이 이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당신은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형질을 매어 두시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가족들을 모두 이 집에 모으고 집 밖에는 나가도 안 되게 하시오. 만약 누군가 집 밖에 나가 다치거나 죽거나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우리의 탓은 아니요. 그 대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책임지고 지키겠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일을 한마디라도 퍼뜨린다면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소"

"말씀대로 하겠어요"하고 라합도 굳게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전송하고 나서 창문에다 붉은 형질을 매 두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 가르쳐 준 대로 사흘 동안 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사이 뒤쫓던 왕의 신하들은 두 사람을 찾지 못



하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내려온 두 사람은 강을 건너 무사히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라합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

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모두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모두가 우리를 겁내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 안젤라



※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틀림없는 증거
이스라엘 민족은 유물론만 되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습관이 있는데, 단지파 민족이 한반도에 와 보니 양이 없으니까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섞어 문설주에 발랐다. 서낭당 나무 가지에다가 빨강형질을 걸어 놓는 예가 있는데 이것도 양의 피를 상징한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읍에 사는 라합이 창문에 양의 피 색깔을 띤 붉은 형질을 매달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